

제1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6장 1-21절

찬송: 23장(통23장), 25장(통25장)

간직할 말씀 :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삼상 6:12).

주제 :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

말씀 앞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에 대해서는 주전 1446년 설도 있고, 그보다 늦은 주전 1200년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 알려진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제19왕조의 ‘메르넵타’(1213-1203BC)가 세운 석비에 있습니다. 메르넵타 석비에 새겨진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단지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쓰는 민족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말해줍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12세기경에 철기를 쓰는 해양민족인 블레셋이 에게해(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연안평야를 점령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연안평야를 분배받았던 단지파의 상당수가 최북단으로 밀려났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방어에 유리한 산지에 정착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도 부실했거니와 동맹체제로서 지파의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사사기에 실린 사사(판관)들은 각각의 지파를 대표한 지도자들이었지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지파들의 경계를 파괴하였고 지파들의 연합을 차단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엘리 사사 때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과 예배를 만홀히 여긴 홉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동서남북으로 길이 열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벡으로 올라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동편 에벤에셀에 방어선을 쳤습니다. 첫 교전에서 군사 4천명을 잃었고, 2차 교전 때 언약궤를 앞장세워 대대적인 공략을 펼쳤지만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사사 엘리와 그의 두 아들과 며느리가 죽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 빼앗긴 언약궤가 일곱 달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아벡 전투가 있었던 해는 주전 1102년경으로 봅니다. 아벡전투는 삼손이 죽으면서 다곤 신당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난 전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삼상 6:1-9).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등상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일곱 달 동안 블레셋의 신전 안 다곤 신 앞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싸움에 패한 나라의 신은 승전한 나라의 신에 통합되곤 하였습니다(예: 야훼-엘, 벨-마르둑, 제우스-아문, 등). 다곤은 물고기(다그) 신이자 풍요를 상징한 해양민족의 신

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로고가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아스다룻과 블레셋의 풍요의 해양신 다곤을 합성한 것이란 주장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어 세이렌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전국의 신인 다곤이 패전국의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듯이 엎어지곤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독종에 시달렸습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해결책을 간구했고, 그들이 얻은 해답은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5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7-8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블레셋에서 구입했어야 할 만큼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하였고, 이스라엘의 사방천지를 들쭉서놓곤 했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장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야훼)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위기에 처하면 놀랍게도 여호와신앙이 활력을 띠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어떤 세력에도 꺾이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패배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련시켜 최후 승리를 안겨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회개하여 여호와께 대한 충성을 쇄신할 기회였습니다. 이 신앙쇄신이 수천 년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한 힘의 원천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여호와가 무적의 신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2.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삼상 6:10-18).

벤세메스는 ‘태양의 집’ 곧 무적의 태양신 신전을 뜻합니다.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그러나 유다지파의 경계에 놓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던 지역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담은 상자를 실은 새 수레를 끄는 암소 두 마리가 벤세메스로 갈 때에 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벤세메스로 직진한 후에 큰 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암소들이 왜 울었는지, 둘째는 암소들이 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셋째는 암소들이 왜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는지입니다.

첫째, 암소들이 울었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 암소들은 헤어진 송아지들이 걱정되어 울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의 죽을 운명을 직감했기 때문에 울었을 수 있습니다. 소들은 영물에 가깝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 제물을 실은 수레를 끄는 임무를 끝내는 즉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지게 될 것과 그로써 다시는 송아지들에게 젖을 물릴 수 없게 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암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사건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벤세메스로 직진하였던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자갈길이라도 그분이 뜻하시면 가야합니다. 구상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천 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

프더라도, 나 혼자의 무력(無力)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敗北)의 쓴잔을 마시더라도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正義)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적(英雄的) 기색(氣色)도 없이, 아니, 불꽃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復活)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셋째, 암소들이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춘”(14절) 것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유다지파의 경계 안쪽이었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발 큰 돌”은 단 지파에 속한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와 사자인 “기묘자”(삿 13:18)를 만나 장차 블레셋을 괴롭힐 삼손을 낳게 될 것 이란 소식을 듣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삿 13:19-20) 이적이 일어난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그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린 후, “여호와와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그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14-15절).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기묘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표였을 것입니다(사 9:6).

3.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삼상 6:19-21).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 본 까닭”(19절)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얇게 펼친 금으로 씌웠고, 상단에 정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두 그룹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블레셋이 속건제로 보낸 상자 속에는 금 귀와 금 독종이 각각 다섯 개씩 들어있었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이 칠십 명이나 죽었던 것은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가로 속 ‘오만’은 일부 사본에 없는 구절입니다. 인근의 베냐민 지파 인구가,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 직후에, 살아남은 자가 남자 6백 명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삿 20:47), 벤세메스에서 죽은 자가 오만 칠십 명이었던다는 진술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 재앙이 있고나서 벤세메스 사람들은 위쪽 산지 사람들인 기랴여아림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옮겨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랴여아림은 ‘숲의 도시’란 뜻이며, 기브온 족속의 거주지였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곳이지만, 유다지파의 경계 안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기랴여아림은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벤세메스와 기랴여아림의 특징은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동시에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두 거대 지파들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위쪽 산지의 베냐민 지파와 아래쪽 평원의 단 지파의 경계지역이자 유다 지파 안쪽에 위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 거대 지파들의 완충지 역할을 했던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블레셋의 침략이 매우 잦았던 곳들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및 유다 산지 경계에 사무엘의 활동무대였던 벧엘, 미스바, 라마 및 기브아가 위치해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중앙 성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백 전투에서 블레셋에 빼앗긴 후 블레셋의 도시들인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유다 산지의 경계지역인 벤세메스와 기랴여아림으로 옮겨진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충돌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다윗 성으로 옮겨간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북 왕

국에서 남 왕국으로 옮겨간 과정을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벤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삼상 13:14, 행 13:22)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아무도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의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모두 가짜 신 곧 우상들이니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꺾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사람의 생각 속이나 있는 가짜 신 곧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홀로 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벤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복 받는 비결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옮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해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쓴 민화 집에 실린 23편의 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및 ‘대자’ 등이 톨스토이가 쓴 민화들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말해봅시다.
2.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3. 그리스도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제2과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7장 1-17절

찬송: 88장(통88장), 91장(통91장)

간직할 말씀 :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삼상 7:3).

주제 : 여호와를 사모하자!

말씀 앞에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보다 무기도 부실했고, 동맹체제로서 지파의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사사들은 전체 지파동맹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개 자기 지파를 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양대 지파들의 산지 곧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의 완충지대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은 지파의식이 약한 곧 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와 언약궤도 실로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양대 지파들의 완충지대인 기랏여아림의 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영광)이 서서히 북에서 남으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변기의 중심에 레위인 출신 사사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지파동맹 체제를 끝내고 통합 이스라엘 체제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사사기의 이야기를 끝내고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삼상 7:1-4).

‘기랏여아림’은 ‘숲의 성읍’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벤세메스로 내려와 여호와와 궤를 옮겨간 기랏여아림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기랏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의 거주지였는데 궤를 옮겨간 사람들은 성읍 외곽의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들로 추정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1절). ‘엘리아살’은 당시 30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입니다. 그에게는 웃사와 아효라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삼하 6:3). 2절,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에서 ‘사모’(히 nahah)의 뜻은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곧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이 극심했던 흑암과 혼돈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특히 여호와와 궤가 옮겨진 지역들 곧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블레셋이 벤세메스로 옮긴 여호와와 언약궤가 기랏여아림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관한 것은 기랏여아림이 완충지대에 있었고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초기 활동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무렵 사무엘의 나이는 아마도 30세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전 생애 동안의 사역을 요약해서 미리 보여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로 인해서 사무엘의 나이가 50여세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아백 전투가 있기 직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때는 사무엘이 아이 때였습니다(삼상 3장). 여기서 ‘아이’(히 naar)는 계명의 아들 곧 종교적 성인이 되는 12-13세의 소년을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는 연령 곧 30세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완전하지 못해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된 가르침입니다. 사무엘은 십계명 1-2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라고 온 족속에게 외쳤습니다. 회개의 방법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3절)고 하였습니다. 4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밀어내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2.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삼상 7:5-11).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며 구원과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5-1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겼더니 그들에게 구원과 복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5절)고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 ‘망보는 곳’을 의미합니다. 미스바는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베냐민 산지의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6절). 이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물을 길어 제단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 같은 연합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미스바 집회는 남과 북의 연합 곧 에브라임을 중심한 북쪽 지파들과 유다를 중심한 남쪽 지파들이 모인 통합집회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약한 중앙고리였던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공략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를 분리시켜 남북의 통합을 저지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미스바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지체 없이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스바로 향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베냐민 산지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재빠르게 저지대의 블레셋 성읍들에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황은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였습니다.

첫째, 블레셋은 산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여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철 병거(전차)를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산 위쪽에서 방어했기 때문에 유리했습니다.

둘째, 미스바에는 약한 베냐민지파 사람들 뿐 아니라, 강한 에브라임지파 사람들과 유다지파 사람들이 전례 없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셋째, 아백 전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셨습니다. 여호와는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영웅호걸도 여호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넷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산지로 올라온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발하셨습니다. 산지에서의 큰 우레는 산들을 진동시켜 흔들림이 크고 공명을 일으켜 공기를 찢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사 64:1-2)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병거를 끌고 왔다면, 말들이 놀라 뛰고 내달려 전열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비백산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11절) 몰아내었습니다.

3.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17).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더니,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13-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12절)고 칭하였습니다. ‘에벤에셀’ 곧 ‘에벤하에제르’는 ‘에벤’(돌, 바위)과 ‘에제르’(도움)에서 유래했으며, ‘도움의 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아백전투 때 에벤에셀은 아백 맞은편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이곳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첫 교전 때 군사 4천명을 잃었고, 2차 교전 때 언약궤를 앞장세워 대대적인 공략을 펼쳤지만 군사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토록 큰 패배의 쓴잔을 마셨던 곳의 지명을 이번에는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몰아낸 지점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12절)면서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이라고 칭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를 상징했던 여호와와 언약궤조차도 ‘에벤에셀’이란 이름의 ‘도움의 돌’조차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미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시대에는 황제들조차 주화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얹고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기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혹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라고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비록 현재는 지고 있고, 고난과 시련을 겪는 중이라 할지라도,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1.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봅시다.
2.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최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 승리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3.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궁핍)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제3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8장 1-22절

찬송: 38장, 14장(통30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

주제 : 선택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조상들의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의 신앙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달랐더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땅(나라)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토라)을 지킬 의무를 받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 이스라엘(그리스도의 나라)의 구성원(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그 체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과 하늘 땅(나라)을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1-9).

사무엘상 7장 13-17절은 미스바 전투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에서는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최소 50세에서 70세까지 다양합니다. 탈무드(Talmud)는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52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벡 전투(1102BC)로부터 사울이 즉위한 때(1050BC)까지가 52년입니다. 또 군사 3만 4천명을 잃고 여호와의 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던 아벡 전투가 있기 직전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때의 나이가 계명의 아들 곧 종교적 성인이 되는 12-13세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30세 초반 때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 및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전투 때 블레셋과 싸워 대승을 거둔 후로 이스라엘에는 상당기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로부터 다시 불평이 쏟아진 것은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사무엘이 보조 사사로 임명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기”(3절) 때문이며, 호시탐탐 블레셋이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벡 전투가 있었던 주전 1102년에서 사울이 즉위한 주전 1050년을 빼면 52년이 됩니다. 거기에 아벡 전투 때 사무엘의 나이 13세를 더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

름을 부을 당시 사무엘의 나이는 65세쯤 됩니다.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즉위한 해는 주전 970년이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였고(삼상 5:4, 대상 29:27) 사울 역시 40년을 통치하였으므로(행 13:21), 사울이 즉위한 해는 주전 1050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뜻은 사사직의 이양이나 계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사직이 계승된 사례가 없고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늙어가면서 자신을 돕게 하려고 아들들을 보조 사사들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에는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를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 사사로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 배치되었다고 말합니다(Josephus, Antiquities, VI, 3, 2).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2천 년 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처음에는 브엘세바에 함께 배치되었다가 부정문제가 불거지면서 떨어뜨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4-5절)라고 탄원하였던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4절의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So 혹은 Then)의 의미인 ‘와’로 본 절이 시작됨으로써, 3절의 내용이 본 절의 내용을 유발시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탄원을 사무엘도 하나님도 모두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절)고 하였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삼상 8:10-18).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탐탐치 않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정 제도가 실시될 경우 필연적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은 남녀들의 강제 징집에 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은 백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강제로 징집할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라는 말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국가 방위군으로서의 징집뿐 아니라, 왕 개인과 신하들의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한 임의의 징집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둘째, 곡물과 가축의 징세 및 징용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의 나라들과 동일한 형태의 권력형 군주로서, 사랑과 공의의 왕이시고 무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욕심을 따라 스스로 택한 인간 왕의 모습입니다. 11-17절을 새번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

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사시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들이 백성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설사 왕이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화는 피 흘림과 희생의 대가로 잠시 동안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살롬’의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18절)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왕정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무적의 신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의지하고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3.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삼상 8:19-22).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뜻)를 펼치시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하곤 합니다. 첫째는 목적의지이고, 둘째는 훈계(계명)의지이며, 셋째는 허락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결코 모든 것의 원인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뜻)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목적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훈계의지도 있으며, 인간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주권의 제한입니다.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완전하지 못함 그 자체가 곧 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주권의 제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두실 수 없고, 특히 배반을 일삼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을 두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피조물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유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그 책임을 인간에게 두시고도 자유에 따른 인간의 모든 우발적인 행동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나 당신의 일꾼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지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선하시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단독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의지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이 결정하는 훈계(계명)의지도 있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고 하신 계명을 비롯해서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613개의 모든 계명들, 곧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과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은 언약 법들로써 지키면 상주시고 어기면 벌주시겠다는 조건법들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신 것들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신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는 사람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의지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한 시간(kairos)이 찰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한 왕정제도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막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일컬어 하나님의 허락의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허락의지의 배경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물이 죄와 허물과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희망한 아브라함 이후 오늘날까지 4천여 년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불행한 삶을 이어온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살아남아 수천 년 동안 남의 나라의 땅이 되어버렸던 조상들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많은 실패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의무를 받아드리고 그 신앙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여호와와의 언약계의 이동에 따라 하나님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신정에서 왕정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환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다는 것을 믿고 보고 따르는 지도자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2.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훈계(계명)의지를 온전히 실행하지를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들의 뜻을 고집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은 고집스런 인간들의 불행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뜻을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불행이요 비극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지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인간의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4과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9장 1-27절

찬송: 280장(통338장), 449장(통377장)

간직할 말씀 :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삼상 9:16).

주제 : 회개하고 순종하자.

말씀 앞에서

사무엘상 8장부터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모가 출중하긴 하였으나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영성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거주하면서 두 거대 지파가 충돌하는 것을 자의든 타의든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수적으로 매우 약했고, 수시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만일 지파동맹의 초대 통합 왕으로 에브라임 지파사람이나 유다 지파사람이 뽑혔다면, 혹은 다른 강한 지파에서 뽑혔다면, 지파간의 큰 충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완충 고리 출신의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은 그가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10:27). 하나님의 보좌이자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북쪽 실로에서부터 서서히 블레셋의 성읍들을 거쳐 두 거대 지파들 사이의 완충지대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궤는 머지않아 다윗 성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심은 별 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출신이면서 영성까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사울로부터 유다 지파출신이면서 영성까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의 신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신 솔로몬 왕의 사후에 갈라져나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개국 초기에 최북단 단과 최남단 벧엘에 여호와의 발등상과 임재의 상징으로 세운 황금송아지가 그 후 멸망 때까지 여러 번의 쿠데타와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치위진 적이 없었고, 폐망이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과 혼합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네 말이 옳다 가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삼상 9:1-10).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한 과정에는 순종이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백성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원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백성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회개의 기도, 16절)을 들으셨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합한 인물이 왕이 되도록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의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도 일정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만한 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나 폐위되게 된 경위에는 모두 순종과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입지 못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도 물론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배경에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한 자였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10절까지를 보면, 그는 암나귀들을 찾으러”는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보자는 사환의 권고에도 귀를 기울여 선지자를 찾아 나섰던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대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 이 순종이 바로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최우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고대세계의 왕들 혹은 황제들은 이집트의 바로를 비롯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가 신성을 주장하였고, 자칭 신의 현현(계시) 혹은 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다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하는 종(일꾼)에 불과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현현(계시)이 사람의 모습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이나 떨기 나무의 불꽃처럼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했으나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삼상 9:11-21).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 1-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신약성경말씀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마음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권고에 따라 사무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울은 그 길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였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함(“부르짖음”, 16절)으로 사울을 왕으로 얻게 되었고, 사울은 순종함으로 바라지 않았던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된 말씀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만 성막건축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씀이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4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제작과정에서 보여준 핵심사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뤄지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핵심사상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 15:22)는 것입니다. 사울이 순종했을 때 왕위에 올랐고, 불순종했을 때 폐위되었습니다. 사울이 순종

했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출신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지만(삼상 15:17), 불순종을 거듭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3.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삼상 9:22-27).

사무엘은 사울을 객실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실은 산당에 부속된 별실로써 화목제를 드린 후 그 제물을 함께 먹는 방이었을 것입니다(삼상 1:4,8,18). 화목제(和睦祭)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로써 예배자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기가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장, 이웃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이미 사울을 왕으로 사환을 그의 신하로 예우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된 30여명의 손님들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의 증인들로서 유력한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의 몫으로 남겨둔 고기는 넓적다리였습니다. 화목제에서 우측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몫이었고, 좌측 넓적다리는 예배자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부위가 사울에게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여러 유력인사들의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음식을 미리 준비케 하였다가 그에게 준 것은, 아직 기름을 붓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에 버금가게 대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지붕은 옥상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의 지붕은 평평하였습니다.

아침 동틀 때쯤에 일어나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기 위해 성읍 끝까지 동행한 후에 사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삼상 10:1). 사무엘이 비밀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파간의 충돌이나 갈등을 우려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된 사례가 열왕기하 9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 중 한 청년을 불러 기름병을 손에 들려 전장으로 보내 여러 신복들 가운데서 예후를 따로 불러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때인 자나 놓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바로 문을 열고 출행량을 쳤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쿠데타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된 사례에서 보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유력한 지파들과 뛰어난 인물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지파출신의 아직 어리고 미력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는 용의주도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그리스도의교회들이 펼치는 운동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은 신약성경에 담겨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현재의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될 당시에 기준(잣대)은 그 글들이 사도성 곧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예배와 의식)이 담겼는가 또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예배와 의식)에 부합하는가였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전통대로 하는 교회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들이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교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말씀을 새기며

1. 그리스도인에게 회개와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봅시다.
2.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말씀은 아마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는 ‘하나님이 명(명령, 지시, 말씀)하신 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왜 중요한지를 말해봅시다.
3.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들이 펼치는 운동 곧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해봅시다

제5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0장 1-27절

찬송: 375장(통421장), 376장(통422장)

간직할 말씀 :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삼상 10:6-7).

주제 :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테레사 수녀, 십자가의 성 요한 등 갈멜회 수도자들이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던 경구입니다. 1866년 3월 30일 성금요일에 충청수영(갈매곶)에서 군문효수를 당한 가톨릭교회의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주교도 가족을 포함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경구를 문장 첫머리에 썼고, 주교품을 받을 때에도 주교 문장 안에 이 경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다블뤼 신부는 조선 후기 박해가 한창이던 1845년 페레올 주교 및 김대건 신부와 함께 중국 상해에서 돛단배를 타고 고초 끝에 금강뱃길을 통하여 익산시 망성면 소재 황산나루터에 이르러 상복차림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 21년간 질병과 배고픔과 싸우며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한 해는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기 19년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곧 하나님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누렸지만,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영성이 부족했던 사울의 신앙을 사무엘이 지도하여 높여 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걷지 못했던 왕의 길을 닦아나갑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삼상 10:1-7).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춰 축하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행한 기름부음 의식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의식이었음을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름부음의 상징으로 행하는 안수례가 사람들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수례 이외에도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기름부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그리스도 직에 임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침례 직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마치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여호와와 영에 크게 감동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는 임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침례는 교회의 출범 때부터 기름부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히브리서 <사도전승>을 번역하고 해제를 쓴 이형우 신부는 이를 일컬어 “제2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 즉 그리스도인(christianus)으로 탄생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침례직후에 머리와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견진

레 의식을 시행해왔던 것은 침례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를 구별하여 임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갖는 상징성에서 보듯이 기름부음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즉시로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지만(삼상 16:13), 사울의 경우에는 기름부음을 받고나서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5-13절). 그것은 여호와를 굳게 신뢰할만한 영성이 사울에게 부족한 탓도 있었고,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출신이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같은 미천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부모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브아로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세 가지 징조(표적)들을 곧 보게 될 터인데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징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냐민 지파 경계 셀사에 있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의 아버지의 전갈을 전달하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나무에 도달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벤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세 마리를, 또 한 사람은 세 개의 덩어리 빵을, 다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맨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들로부터 문안을 받고 두 개의 덩어리 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구축한 군사기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 곧 기브아에 이르게 되고,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5-7절)고 하였습니다.

2.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삼상 10:8-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부모를 만나 안심을 시켜드린 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칠 일간 숙고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왕이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언급한 제사들은 아마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중대한 일들이 있어서 사울은 매우 수동적이고 사무엘은 매우 능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이 대체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도 사명도 받지 아니한 일꾼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꾼일 것입니다.

참고로 번제(燔祭)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와 함께 세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화제였습니다. 번제 때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몫이었고, 가축은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몫이 없었습니다. 가축만 취했던 제사장은 번제와 함께 세트로 드리는 소제나 화목제 등을 통해서 필요한 몫을 더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和睦祭)도 소제처럼 자원해서 바치는, 불에 태우는 화제였지만,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만 상징적으로 태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와 고운가루로 만든 부침이나 전병이 함께 드려지듯이, 화목제도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는 속죄와 친교 의미를 갖는 주의 만찬에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누룩 없는 마른 빵의 예표이자,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특징은 예배자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슴은 요제로 흔들고, 오른쪽 뒤 넓적다리는 거제로 높이 쳐든 다음 가족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져다가 가족친지 또는 이웃들과 함께 그날로 다 먹어야 했고, 먹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목제로 드린 고기는 예배자든, 제사장이든 그것을 결코 혼자서 독식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드시 제사 드린 바로 그 날에 모두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인근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곳에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수 4:19),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기념하여 비석을 세웠던 곳이며(수 4:19-24),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수 5:2-11). 유월절을 지킨 후 이곳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수 5:12).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길갈에 내려가 칠일을 기다리고 한 것은 사무엘 자신에게도 백성들을 소집할 시간이 필요했고, 사울도 자신을 성별할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길갈로 사울을 보내 새 출발과 헌신을 다짐할 기회를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라마, 기브야, 미스바, 벳엘 등과 함께 사무엘의 주요한 활동무대였습니다.

9절은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길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 날로 다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10절은 사울과 사환이 고향인 기브야에 도착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브야’는 언덕이란 뜻으로써 작은 산을 뜻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둔 산당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사무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무엘의 주거지인 라마에서 왔을 것입니다. 사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선지자의 무리에 섞여서 예언을 하는 사울을 보고 그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11-12절)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13절). 참고로 여기서 말한 “예언”은 예언자들의 예언 곧 미래에 있을 사건이나 일 곧 하나님의 뜻인 회개와 회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예언”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신령한 방언을 하였거나 특별하거나 특이한 찬양을 의미했다고 봐야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은 대개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쓰임이 같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에서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은 제삼위격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행 7:36)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3.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삼상 10:14-27).

14-16절은 사울과 사환이 산당에서 내려와 자신들의 집에 도착한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고 숙부가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숙부가 사울 왕국에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의 숙부는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된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었기 때문입니다(14:50-51, 대상 8:33). 숙부 넬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16절)고 했습니다. 숙부 넬은 암나귀 사건(9:3-4) 이후 확실히 변화된 모습과 행동을 보인(10절) 사울에게서 어떤 예감을 갖고, 그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기름부음까지 받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공개되는 순간 사울이 위협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단단히 일러뒀을 것입니다(9:25-27).

사무엘은 백성을 다시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두 거대 지파들 곧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지대인 베냐민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이기에 적합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고(7:5), 이스라엘을 오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했던 기념비적 장소(7:6)였으며, 사무엘의 활동무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백성”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동맹으로 구성한 각 지파에서 천 명씩 뽑힌 대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숫자만도 일만 이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7절의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종종 여호와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나 성막 또는 대제사장의 우림이나 둠뎀(출 28:30) 앞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18-19절에서 모인 대표자들에게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고 책망하며 장차 그 왕으로 인해 서 당하게 될 고통도 그들 자신이 감내해야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8:9-18).

20절에서는 어느 지파, 어떤 가문, 어떤 인물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수 18:6, 8, 은 1:7, 행 1:20-26). 성경에 언급된 제비뽑기는 그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곧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잠 16:33)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지파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사울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에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마도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키가 컸고 풍채가 우람하였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만족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만세” 곧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 곧 여호와와의 권위아래에 둔 후에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25절). 사울도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행로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26절)였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사울 왕을 보필하기에 적합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에게 반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가장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일종의 갑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지도 않았고, 공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직 기반이 약했던 사울은 때를 기다리며 귀먹은 사람처럼 못들은 체하며 그들의 반발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유명한 경구에서 보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얻었지만, 불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영성이 부족했던 사울의 신앙을 사무엘이 지도하여 영성을 높여 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전에 아무도 오르지 못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왕이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일부분 그의 출중한 외모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구하여진’ 혹은 ‘요청하여진’입니다. 그의 이름이 뜻하는바와 같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셨고 사무엘이 꼭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시킨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는 준비된 왕이 아니었고, 백성이 구해서 된 왕이었습니다. 그 점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사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의 요청으로 이뤄진 일들은 이미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새기며

1.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인간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처음부터 일이 그릇되어 오랜 동안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눌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봅시다.
2. 이스라엘 왕들의 실패와 국가의 멸망은 온전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잦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수습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자가 아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6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1장 1-15절

찬송: 352장(통390장), 353장(통391장)

간직할 말씀 :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삼상 11:11).

주제 :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씀 앞에서

사사기 10장 7-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쪽의 블레셋으로부터 동쪽의 암몬으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사울은 일국의 왕이라기보다는 최고 지도자 또는 전쟁 사령관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파동맹체제를 중앙집권 체제로 바꾸지 않았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상비군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왕궁도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고향 기브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각 지파에서 군사를 소집하여 대응하였습니다(삼상 13:2, 14:52). 무기도 빈약하여 철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대항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정초기에 여호와께 충실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14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무엘이 암몬을 혼출 낸 사울의 리더십에 고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삼상 11:1-5)

암몬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민족들 중 하나로서 현 요르단 땅인 요단강 동편, 모압의 북편에 거주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이었습니다(창 19:30-38).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 약 3.2km 거리에 있는 길르앗의 마을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을 때, 야베스의 주민들은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이니 화친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제안에 나하스는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야 화친하겠다고 으박질렀고 온 이스라엘을 같은 방법으로 모욕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 가부간에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고,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거주하는 기브아에 도착하여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4절)고 했습니다.

기브아의 주민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0-21장에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변태성욕자들로 인해 죽은 사건으로 야기된 전쟁, 곧 지파동맹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했었습니다(삿 21:8-9). 지파동맹연합이 남자 600명만 남기고 진멸시킨 베냐민 지파의 존속을 염려하여 처녀들을 구해주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삿 21:1)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복안이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길르앗 야베스를 쳐서 모조리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잡아와 숨어 지내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고 그들과 평화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명절축제 때 춤추는 여자들을 보쌌 하여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2.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삼상 11:6-11). 사울이 암몬의 침략소식을 접한 것은 밭일을 마치고 한 겨리의 소를 몰고 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사시대에 성전(聖戰)을 앞두고 사사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삿 3:10, 6:34, 11:29, 13:25, 14:6, 15:14),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이 무렵 사울은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의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거나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또 사울의 의분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밭을 갈았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7절)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소들을 잡아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낸” 것은 군대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한 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한 위협적인 경고였습니다. 게다가 이 전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길르앗 야베스가 지파동맹연합군에 불참한 후에 연합군에 진멸당한 사건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와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던” 이유였습니다.

8절에 의하면, 군사들이 야간행군을 위해서 ‘베섹’이란 곳에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베섹’은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성읍 세겜 동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잇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호수 남쪽에 있었습니다. 베섹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 약 22.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새 걸어 아침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9절에서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령을 통해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내일 정오 무렵이면 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10절)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일 우리가 항복할 터이니, 눈을 빼든지 봐주든지 당신들 좋을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암몬이 경계심을 풀게 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음날 이른 새벽에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하였고, 협공을 위해서 군대를 셋으로 나눈 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갔습니

다. 사울은 방심과 자만심에 빠져 깊이 잠들어 있는 암몬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싸움은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11절)고 하였습니다.

3.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삼상 11:12-15).

백성들은 고무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를 통해서 자신이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왕인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한방으로 사울의 왕권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일개 농사꾼이 자신들의 왕으로 뽑힌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사울에 대해 불복종과 거역의 뜻을 나타내었던 불량배들을 처단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13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이 같은 관용의 태도는 왕국 출발 초기에 사울의 도덕적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암몬과 싸워 거둔 대승에 대만족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14절, KJV, NASB)며 백성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무슨 뜻일까요?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루카’는 왕의 신분, 왕위,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다쉬’는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를 의미하는 말로써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 성경 개역과 개정 및 영어 성경 KJV와 NASB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로 번역했고, 새 번역과 NIV 성경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로, 공동번역은 “즉위식을 올립시다”로, 가톨릭성경은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길갈까지는 직선거리로 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장정들의 걸음으로 꼬박 이틀을 걸어야하는 먼 거리입니다. 반면에 길갈은 사무엘의 주요한 활동무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15절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으로 삼고”는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 삼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는 왕이 되다 혹은 통치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성경 NIV는 “왕으로 확정하고”(confirmed as king)로 번역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부음도 받았고, 미스바 집회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한 마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불행히도 사울의 겸손과 관용은 왕국이 공고화되고 왕권이 강화된 후에 점차 퇴색되고 사라져 결국 영적 도덕적 정치적인 면에서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효성(9:1-4), 사환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포용성(9:5-10),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낮추어 소개한 겸손(9:21),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영성(10:9-13),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양(10:16, 22, 27), 의로운 분노(11:6),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아니한 관용(11:13)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실권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드린 망령된 제사(13:8-14), 경솔한 맹세(14:24, 29, 43-45), 아말

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의 불순종(15:18-19), 왕위에 대한 집착,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 행한 반역(18:7-9), 다윗을 일곱 번이나 죽이려고 한 시도(18:11, 25, 19:1, 10, 11, 20, 20:31), 망명한 다윗을 죽이려고 네 번이나 행한 추격(23:13, 24, 24:1, 26:2),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무당을 찾아감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한 것(28:8)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사울이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얻었는지 말해봅시다.
2.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는지 말해봅시다.
3.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혐오하는 자가 되었는지 말해봅시다.

제7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2장 1-25절

찬송: 382장(통432장), 419장(통478장)

간직할 말씀 :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삼상 12:24).

주제 :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자.

말씀 앞에서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작별설교입니다. 설교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무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원수 마귀를 무찌를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우주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 아래 서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든 백성이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21절)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24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25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삼상 12:1-5).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인간들의 요구를 대체로 허락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에 따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내버려 두사”(롬 1:24, 26, 28)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사”는 헬라어 ‘파라디도미’(paradido-mi)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전수하다,’ ‘넘겨주다,’ ‘전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는 ‘넘겨주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막 14:10), 산헤드린에 의해 빌라도에게(막 15:10, 빌라도에 의해 백성들의 뜻에 따라(눅 23:25) 로마 군인들에게(막 15:15) 넘겨지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죄범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범한 자를 성도들의 교제에서 제외시켰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파문시키듯이, 교회에서 ‘파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사”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버림’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 뜻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히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집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 서성이며 멀리 길 끝을 응시하는 것과 같은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플로 돌아온 아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한 아버지와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바라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심’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주인이 찾고 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이다”(눅 15:6)고 말하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행한 고별설교의 핵심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은 1-5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청렴결백했고 공명정대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강조는, 사무엘이 항상 올바르게 처신한 것처럼, 사울 왕과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5절)는 말씀이 그 같은 내용을 설명해줍니다.

2.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삼상 12:6-18).

학자들은 사무엘의 설교 6-15절이 고대 중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봉신들에게 지속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봉신들에게 지난날 베풀었던 선행을 강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은 출애굽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과거 미천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크신 은총을 강조하였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또 다른 왕(인간)을 요구한 사실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를 깨우쳐 주는 동시에 백성은 물론이고 왕조차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출애굽 구속 사건과 지난날의 일들을 언급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에 한 마음으로 화답한 데는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열두지파가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 조상들의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과 사사시대의 구원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달랐더라도, 그 체험들을 기억하고 공감하며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땅(나라)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언약(토라)을 지킬 의무를 받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옳고 그름의 잣대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토라, 옛 언약,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 이스라엘인(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체험들을, 비록 그 체험들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비록 혈통이나 민족이 다르더라도, 그 체험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드리고 그 삶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승리와 영광과 하늘 땅(나라)을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의무 곧 새 언약(복음)을 받아드리는 데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삼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 잣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실천하여 신약성경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리스도의교회들이 3세기에 걸쳐서 펼치고 있는 환원운동인 것입니다.

16-18절은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는 이들을 위해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

을 확실히 심기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베는 시기는 오순절 시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한 달 보름이 지난 시반(셋째 달) 초하룻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습니다(출 24장). 이 때 곧 첫 오순절 날에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옛 언약)입니다. 이 시기 곧 5월말 6월초에 수확하는 작물은 밀입니다. 이미 수확을 끝낸 보리와 함께 밀을 탈취하려는 욕심이 암몬에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12월부터 2월까지만 내립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오순절 시기에 “우레와 비를” 본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사무엘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고 했던 것이고, 18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3.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삼상 12:19-25).

이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19절)고 회개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자 사무엘은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히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 하나님을 ...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삼상 10:19)고 요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한 사실도 회개하였습니다(삼상 8:8, 12:10).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고통의 수렁에 빠지곤 했고, 그때마다 울부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곤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통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담긴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가 “~를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365개가 “~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죄는 크게 죄와 허물로 구분됩니다.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주로 십계명 중 제1-4계명을 범한 것을 말하고, 허물(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말하며, 주로 제5-10계명을 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1-4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주로 이웃과의 관계, 곧 십계명중 제5-10계명에 해당되는 허물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613개 계명의 핵심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자기 남편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삿 3:7),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삿 10:6) 섬기곤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삿 10:13)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삿 10:10)고 회개하면, 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삿 10:10)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이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간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이 많은 적은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직 그 분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백성들 앞에서 작별설교를 행한 사무엘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쯤이었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때가 65세쯤 되었을 때란 점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암몬을 물리친 때가 왕이 된지 얼마나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가 이때 대략 70세를 넘긴 때였을 것으로 추정만 해볼 뿐입니다. 한 평생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온 사무엘의 결론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22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결코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무엘은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23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24절)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 받은 민족인가를 생각하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란 점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복 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새기며

1. 왜 여호와는 신실한 하나님이신가를 함께 말해봅시다.
2.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말해봅시다.
3. 어떻게 또는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를 함께 나눠봅시다.

제8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3장 1-23절

찬송: 446장(통500장), 449장(통377장)

간직할 말씀 :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삼상 13:13-14).

주제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말씀 앞에서

사무엘상 13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란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크게 강조하는 것이나 유대교에서 오늘날까지 크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살길이나 선민이 되는 조건이 말씀을 사랑하고 받아드려 문자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엘리트들은 제2모세(메시아)가 와서 세울 ‘다가올 세상’(Olam Ha-Ba)을 ‘희망’(Ha-Tikvah)하며, 그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인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혈통이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을 간직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며,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서 제국들의 속주 식민으로 살아가지만, 유대민족혈통과 유대교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한 것이 아니고, 유대민족혈통이 보존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이며, 계명들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교신앙이 유지되는 한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가 계명들을 실천하는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준수 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다고 믿기에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 같은 교훈이 사무엘상 13장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의교회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의식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서 모퉁이들이 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과 그 능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합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삼상 13:1-4).

사무엘상 13장 1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성경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해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이년간 다스렸다”입니다. 이 본문을 개정, 개역, 바른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라고 했고, 새번역과 영어성경 NIV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두 해였다.”고 했으며, 가톨릭성경은 “사울이 임금이 된 것은 서른 살 때

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두 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 영어성경 NASB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서른 두해였다.”라고 했고, 가장 오래된 영어성경 KJV는 “사울은 일 년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년간 통치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KJV 본문 그대로 ‘사울이 왕이 된 지 일 년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13장 1절의 번역이 제각각인 것은 히브리어성경 본문에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이 “해(년)의 아들”이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이어 칠십인역(LXX)과 공동번역에는 1절 전체가 없습니다. 일부 번역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를 ‘서른 살’”이라고 한 것은 칠십인역 후대 사본에 따른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해였다’”고 한 것은 히브리어성경 본문의 ‘둘(두)’ 앞에 10단위가 빠졌을 것으로 보고, 사도행전 13장 21절의 “40년”에다 “두해”를 더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필사자의 실수에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성경시대에 필사된 사본들일수록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따라서 대조해볼 필사본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록연대가 늦은 고대 신약성경 헬라이어 필사본들은 남아 있는 것이 많아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인쇄술이 발명된 것은 주후 1450년입니다. 그리고 1452년부터 3년에 걸쳐서 구텐베르크 성경이 180부 인쇄되었는데, 필사본 생산 속도와 비교하여 15배가 빨랐습니다.

출애굽 연도를 1446년으로 봤을 때, 사울이 주전 105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다윗이 주전 101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40년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통치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신학적인 통치기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사울의 통치에 관한 사무엘상의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사울의 통치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울에게 장성한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이 즉위한지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베냐민 산지에서 펼쳐진 전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기간 동안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완충지대였던 베냐민 산지의 여러 성읍들에 자신들의 수비대를 두고 있었다는 것과 다윗왕국시대가 도래하기까지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것은 그들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2.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삼상 13:5-18).

사울은 암몬을 물리친 후에 삼천 명을 택하여 상비군을 베냐민 산지에 주둔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라와 벳엘 산에 있게 하고,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2절)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기브아 북쪽, 벳아웬 남쪽에 위치한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길갈로 내려가 군사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벳아웬 동쪽 므마스라에 어마 무시한 군사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병거(전차)가 삼만, 마병이 육천, 백성(보병)이 “해변의 모래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줄행랑을 친 후에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바빴습니다. 블레셋이 푹푹 뭉친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알 같이 흩어졌습니다. 블레셋의 위세가 등등했던 반면에 사

울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칠일 후에 길갈로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조차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자 겁을 먹은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남은 자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이 약정한 칠 일째 날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이에 겁을 먹은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급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주관할 제사를 자신이 주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사울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엘리의 증손자 아히야에 의해서 시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히야는 당시 예복을 착용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14:3). 따라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제사는 사무엘이 주관했어야 했고, 사울이 지시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13-14절)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꼭 사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와 원칙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무엘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하신 계시록 13장 10절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한 히브리서 6장 1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은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한 것은 추측컨대 아직 해가 남아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바뀝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칠 일간 기다린 것은 맞지만, 완전한 칠일이 아닌 육일하고 반나절 정도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군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급함은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사울의 평생을 좌우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인내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3.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삼상 13:19-23).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He's Still on Time. 요 11:35-44). 힐 요한(John J. Hill) 선교사는 만 26세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태평양전쟁의 징후로 1940년 11월 16일 급히 미국으로 철수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힐은 목회를 하던 중 1944년 10월 5일 군목학교에 입학하여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되었습니다. 힐이 탄 배가 1945년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습니다.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 의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쉴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힐은 그리스도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가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 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힐 중위는 군용비상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미군들이 수감자들을 구원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하루 남긴 날이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일 늦게”(Four Days Lat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시대는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했던 것은 그들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철병거도 없었고, 말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여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쟁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쟁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20-21절)고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22절)고 했습니다. 철병거(전차) 삼만, 마병 육천, 창과 칼을 손에 쥔 수많은 보병들에 맞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쥔 것은 농기구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 미리 일어나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2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므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마아바르’로써 얇은 개울 또는 수로를 뜻합니다. 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개울 양쪽에 암벽들이 있었고, 한쪽 벽은 므마스, 다른 쪽 벽은 게바로 불리었습니다. 23절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는 블레셋의 본대의 병력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병력을 3대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17-18절). 그리고 나머지 병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려고 므마스의 산언덕 위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전투에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나이다. 죽을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고 말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각오한 임전무퇴의 정신을 되새겨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의 330여 척을 거의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것처럼, 이 싸움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점쳐집니다. 성경은 특히 계시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곧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몹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 게임을 진두지휘하시며 1-3쿼터의 열세를 역전시킬 슈퍼스타 또는 비밀병기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셨던 부분이 아마도 사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제멋대로 제사를 주관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2.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3.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경험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제9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 : 사무엘상 14장 1-52절

찬송: 352장(통390장), 360장(통402장)

간직할 말씀 :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벤아웬을 지나니라”(삼상 14:23).

주제 :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말씀 앞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의 사울의 실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전쟁에서의 패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 왕권이 차후 다윗에게 넘겨질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북에서 남으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중심이 옮겨지게 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에서 나오실 것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47-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1-15).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스러움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므마스 어귀 절벽에 자신들의 과수대를 세우자 요나단은 단독으로 과수대를 쳐들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년이 든 무기는 아마도 방패와 창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요나단은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에봇을 착용한 아히야와 언약궤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13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어귀”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마아바르’로써 얇은 개울 또는 수로를 뜻합니다. 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개울 양쪽에 높고 험한 암벽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또 한쪽 암벽은 므마스 맞은편에 있었고, 다른 쪽 암벽은 게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벽 위 므마스 산언덕에 과수대를 만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험한 지역이어서 많은 군사들이 백병전을 펼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에 익숙한 요나단은 “우리가 이 할레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6절)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블레셋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무기를 든 소년도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라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을 얻고자 하여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8-10절)고 말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섰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채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려가 넓은 곳에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여 험한 암벽 위로 올라오라고 유인하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올라오게 한 곳은 일대일로 밖에는 달리 싸울 수 없는 절벽 위 경사지였기 때문입니다. 옹거니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습니다.”(13절). 일대일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의 상대가 못되었습니다. 앞장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면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며 확인사살을 하였습니다. 14절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이십 명 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나절 같이 땅”이란 600평 정도를 말합니다. 13세기 때에는 거리의 황소가 하루에 갈수 있는 땅의 면적을 1에이커로 삼았다고 합니다. 1에이커는 1200평 정도입니다. 므마스 절벽 위에서 펼쳐진 이 전투를 지켜본 “뜰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15절)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진을 일으켜 이 전쟁에 함께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벤아웬을 지나니라”(삼상 16:16-35).

므마스 절벽 위에서 펼쳐진 전투를 지켜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산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때 파수꾼은 대략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블레셋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로 인해 용기를 잃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스러운 장면뿐 아니라, 그들의 아우성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사울은 점호를 통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공격할지 말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황이 점점 더 이스라엘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이내 포기하고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울은 전진을 살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진중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 자기편끼리 칼로 서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황은 점점 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망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부대에 편성되어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던 용병이었거나 사로잡혀가 징용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지파만 아니었다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군대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합류하였습니다”(21절). 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벤아웬을 지나니라”(22-23절)고

했습니다. 여기서 ‘벤아웬’은 므마스 서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벤아웬을 지났다”는 뜻은 ‘벤아웬 동편’ 므마스에 주둔했던 블레셋 족속의 군대가 자신들의 성읍 방향인 서쪽으로 패주했다는 뜻입니다. 31절에서는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아얄론은 므마스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국경에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울이 이 날에 금식을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 날의 전투에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던 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는 워낙 불리한 전투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백성이 전멸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위한 기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회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배가 고팠고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수풀에 들어가 먹을 것을 찾다가 꿀을 발견했으나 저주 받을 것이 두려워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 금식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손에 가진 지팡이 꿀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27절)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그 날에 금식을 명령한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힘을 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태도에 고무되었는지, 아니면 해가 지고 날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는지, 허기에 지친 백성들은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까지 먹었습니다”(32절).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인들은 피를 완전히 뺀 고기가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에 사울은 큰 돌을 굴러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거기로 와서 그 밤에 율법대로 고기를 잡아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35절).

3.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삼상 14:36-52).

백성이 먹은 후에 사울은 그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했고, 백성은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야는 사울 왕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보자고 제안하였고, 사울은 우림과 둠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37절). 그러자 사울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우고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38절)고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한 원인이 자신과 요나단에게 있는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있는지를 갈라 세운 후에 제비뽑기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다시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요나단은 사실대로 말하고 죽기를 자청하였습니다. 사울은, 비록 요나단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어긴 것이긴 했지만, 처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준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5절). 그리하여 요

나단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로써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감”으로써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47-52절은 이 전투 이후의 사울의 업적과 그의 가족들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47-48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50-51절에서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며 가족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에서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며 상비군 보유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하며,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뿐 아니라,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재력이나 명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가문이나 학벌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작고 약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끝없이 짓밟히고 노예로 끌려 다녔던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자기 후손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처음 품은 이후 오늘날까지 4천여 년 기간에 3천여 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을 정도로 불우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은 떠돌이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노예였습니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불우한 처지에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유대교신앙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힘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지 2,600여년만인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이 조상들에 약속한 바로 그 땅에 나라를 재건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새기며

1. 우리는 종종 앞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절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앞을 볼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2. 병거도 없고 말도 없고 칼이나 창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기구들만 가지고서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었는지 말해봅시다.
3.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해봅시다.